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3년간 사회의식 변화 및 생활 만족도에 대한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의학교육학과,¹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학 협동과정,²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³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⁴ 충북대학교 심리학과⁵

전우택¹ · 유시은² · 조영아³ · 홍창형⁴ · 엄진섭⁵ · 서승원⁴

3-Year Follow up Study of the Way of Thinking and Satisfac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Woo Taek Jeon, MD¹, Shi-Eun Yu², Young-A Cho, PhD³,
Changhyung Hong, MD⁴, Jin-Sup Um⁵ and Seung Won Seo, MD⁴

¹Department of Psychiatry, Medical Education, School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²Interdisciplinary Graduate Program in Korean Unific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³Yonsei Counselling Center,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⁴Department of Psychiatry, School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⁵Department of Psychology, Chogbuk University, Chungju, Korea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nge in attitudes and satisfaction level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South Korea over a 3 year period (2001–2004).

Methods : In our first study in 2001, a total of 200 defectors were interviewed. In the follow up study after 3 years, 151 defectors were re-interviewed by an in-person interview.

Results : The level of satisfaction to the governmental support policy to defectors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general level of satisfaction increased slightly (from 3.52 to 3.56 ; 5-score scale). This shows that North Korean defectors are stably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The level of satisfaction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defectors' confusion of the different value systems, the defectors' understanding of the South Korean people, satisfaction with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e prejudice of South Korean people to defectors. In terms of the attitudes, the type of schooling, the military service and the communist party membership in North Korea were not related to the change in attitude.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gender and age. Women showed a greater change in attitude compared to men. Older people had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South Korean people, but they showed little psychological affiliation to North Korea. Moreover, they showed a high level of satisfaction with the economic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had an optimistic viewpoint for their future than younger people. Even though many defectors attended churches, religion was not associated with the level of satisfaction or their change in attitude.

Conclusion :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defectors have changed over 3 years. Therefore, the government,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associated with defectors and the churches need to be more sensitive to these changes and make plans to support the adaptation of defectors to South Korean society.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6;45(3):252-268)

KEY WORDS : North Korea · Defector · Refugee · Mental health · Way of thinking.

서 론

북한이탈주민들은 통일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들의 남한 사회 적응은 50년 이상 극단적으로 이질화된 남북한 사회가 통일 이후 어떤 과정을 겪어 나갈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북한이탈주민

접수일자 : 2005년 10월 28일 / 심사완료 : 2006년 3월 15일

Address for correspondence

Woo Taek Jeon, M.D. Department of Psychiatry, Medical Education, School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moon-gu, Seoul 120-752, Korea

Tel : +82-2-2228-2510, Fax : +82-2-364-5450, E-mail : wtjeon@yumc.yonsei.ac.kr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04년도 학술진흥재단 연구 지원(KRF-2002-73-BM2004)를 받아 이루어짐.

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조사한 많은 연구들이 있어왔다.¹⁻¹³⁾ 그 동안의 연구들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으나, 크게 두 가지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취업, 주거, 자녀 교육 등 물리적인 적응 상태에 대한 조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과 같은 이주자들의 적응은 물리적 적응뿐만 아니라, 문화와 의식의 적응까지를 포함하는데,^{13,14)} 그 동안의 연구에서는 그에 대한 연구가 매우 적게 이루어졌다. 그에 따라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에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모든 북한이탈주민 연구가 어느 한 시점에서의 횡단면적인 북한이탈주민 적응 상태만을 조사, 연구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들어와 적응해 나가면서 가지는 시간적 변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2001년에 새로운 형태의 북한이탈주민 조사를 기획하였다. 즉 남한에 들어와서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기간이 동일한 북한이탈주민 집단 200명을 코호트 집단으로 정하고,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을 3년마다 추적조사하기로 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식과 만족도 등 포괄적인 내용이 포함되었다. 2001년도에 이에 대한 1차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생활을 중심으로 한 보고¹⁴⁾와 의식 및 만족도를 중심으로 한 부분¹⁵⁾으로 나뉘어서 보고 된 바 있다.

본 연구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연구의 후속 추적연구로 1차 연구가 이루어 진지 3년이 지난 2004년도에 2차 추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그 중 의식과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보고이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졌다.

첫째, 1차 조사 시 대상이 되었던 200명을 3년이 지난 후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추적 조사하여 3년간의 남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이들에게 있게 된 의식과 만족도의 변화를 알아보도록 한다. 둘째, 이들의 의식과 만족도에 영향을 끼친 인구학적, 사회적 요인들을 알아본다. 셋째,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이 성공적으로 남한사회 적응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하도록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자들은 2001년도에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과 만족도 조사(이하 1차

연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2001년에 실시된 1차 연구에서 대상이 된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3년이 지난 2004년도에 다시 추적 조사를 하여 이루어졌다. 2001년 당시 연구 대상이 되었던 200명의 북한이탈주민들은 2000년 3월부터 2001년 3월까지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293명 중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사람들로 구성되었다(이하 이 200명을 집단 1이라 부름). 2001년 당시 1차 연구에는 위에서 언급한 200명 이외에도 1980년부터 2000년까지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던 북한이탈주민 352명도 연구가 되었었다(이하 이들을 집단 2라고 부름). 이들은 집단 1보다 남한 생활을 더 길게 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2001년 1차 연구 당시, 연구 대상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는 총 552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였다. 2004년도에 실시된 본 2차 연구에서는 집단 1의 200명을 대상으로 추적하여 이들과의 재면담을 시도하였다. 그래서 200명 중 총 151명의 북한이탈주민들과 재면담이 이루어 질 수 있었다(추적 성공률 75.5%). 즉 이들 151명은 2001년도에도 응답을 하였고, 2004년도에도 응답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 같은 사람들이 2001년도에 응답한 내용과 2004년도에 응답한 내용의 비교가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 151명이 2001년도에 응답한 내용을 통계내기 위하여 2001년도 당시의 151명 집단을 편의상 집단 3이라 부르기로 하고 2004년도의 151명 집단을 편의상 집단 4라 부르기로 한다. 즉 집단 3과 집단 4는 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만 각각 2001년도와 2004년도에 응답한 내용으로 구분된다. 본 면담 조사는 2004년 2월 9일부터 2월 20일까지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응답은 일대일 대인면접조사를 통하여 얻었다. 면접 조사자들은 국내 모 대학교 문화인류학과 대학원생들과 대학생들 총 18명이 3차례 결친 교육과 역할극 훈련을 받은 후 시행하도록 하였다.

집단 1이 200명이었던 것에 비하여 집단 3, 4가 151명으로 구성되었다. 추적을 하는데 있어 151명(75.5%)만이 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정부 기관의 지원을 받아 200명의 주소와 연락처를 파악하였는데, 이때 주소나 연락처가 파악된 사람이 총 185명이었다. 나머지 15명은 주소나 연락처가 불명이었다. 주소와 연락처를 알 수 있었던 185명 중, 연락처가 결번으로 연락이 안 된 사람이 15명, 여행이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에 가 있어 연락 두절이 된 사람이 8명, 해외어학연수로 외국에 나가있는 사람이 1명,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연락할 수 없었던 것이 1명, 본 연구에 참

여하여 응답하기를 거부한 사람이 9명이었다. 이에 총 49명이 본 추적연구에 참여하지를 못하였고, 151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조사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조사도구는 2001년도 실시된 1차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위하여 1차 연구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도구는 북한 이탈주민들의 의식 척도와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 이탈주민들의 의식 척도는 전우택 등¹⁵⁾이 2001년에 개발한 도구로 그 내용은 남한사회 인식과 이해, 북한이탈주민의 자기인식, 경제사정과 전망, 남한 생활에 대한 만족도, 가치감, 북한 출신이라는 점에 대한 의식, 통일 후 전망에 관한 내용을 측정하는 총 7개 영역 4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안 그렇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2001년도에 이루어 진 조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이 46개의 문항들은 12개의 하위 요인으로 구분되었는데, 이 하위 요인은 경제적 만족도(4문항), 가치관 혼란(4문항), 북한이탈주민간 단결(2문항), 정부지원정책 만족도(6문항),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4문항),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3문항), 정신신체 만족도(3문항),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2문항), 주거 만족도(2문항), 남한 사회 언어 이해(2문항), 남한사람들의 편견(2문항), 미래에 대한 전망(2문항) 등이었다.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성별, 연령, 남한에서의 직장상태, 종교에 관한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종교에 대한 조사에 있어 본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는 시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을 추가하였다. 즉 응답자들의 종교 성향에 대한 조사로서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Intrinsic-Extrinsic Religious Orientation Scale)를 실시하였다. 이것은 Allport와 Ross,¹⁶⁾ Feagin,¹⁷⁾ Hoge 등¹⁸⁾이 만든 척도를 최영민 등¹⁹⁾이 한국형으로 만들어 표준화한 척도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이것은 내재적 성향 관련 13문항, 외현적 성향 관련 문항 13문항 등 총 26개 항목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하여 찬성하는 정도에 따라 5점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응답자의 종교 성향이 내재적, 외현적 접수로 구분되어 나오게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내재적 종교 성향이란 삶의 중심 동기를 종교에서 찾으며 삶의 다른 동기들보다 종교를 중시하며, 종교적 신조를 믿고, 종교적 진실성을 가지는 성숙한 종교성을 의미한다. 그에 비하여 외현적 종교성이란 자기중심적인 종교성이며, 종교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며, 위로와 안전, 사교, 자기 합리화 등이 중

요하며, 당황스러운 종교적 신조는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는 미성숙하고 건강하지 못한 종교성으로 본다.¹⁹⁾ 따라서 본 조사를 통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여부와 별도로 그들의 종교 성향을 가지고 의식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 사용한 분석방법은 독립집단 t 검증(independent samples t-test)과 상관된 집단 t 검증(related samples t-test),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이었다. 세부적으로 2001년 조사에서 집단 1과 집단 2의 의식 척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독립집단 t 검증을 사용하였으며, 2001년 조사에서 집단 1의 의식 척도 평균과 2004년 집단 1에 대한 추적조사에서의 의식 척도 평균을 비교하기 위하여 상관된 집단 t 검증을 사용하였다. 2001년 조사와 2004년도 추적조사에서 의식척도 하위요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001

Table 1. 응답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징

	1차 조사*		추적 조사	
	2001년 집단 1 (n=200)	2001년 집단 2 (n=352)	2001년 집단 3 (n=151)	2004년 집단 4 (n=151)
	117 (58.5)	278 (79.0)	86 (57.0)	86 (57.0)
성 별	여	83 (41.5)	74 (21.0)	65 (43.0)
	30세 미만	66 (33.0)	121 (34.4)	52 (34.4)
연 령	30~39세	77 (38.5)	104 (29.5)	56 (36.4)
	40~49세	35 (17.5)	61 (17.3)	24 (15.9)
	50세 이상	22 (11.0)	66 (18.8)	19 (12.6)
정규직	49 (24.5)	88 (25.0)	37 (24.5)	54 (35.8)
취업 계약직	19 (9.5)	66 (18.8)	14 (9.3)	48 (31.8)
형 태 자영업	10 (5.0)	29 (8.2)	9 (6.0)	19 (12.6)
없 음	122 (61.0)	169 (48.0)	91 (60.3)	30 (19.9)
종교	개신교	151 (75.5)	180 (51.1)	115 (76.2)
	천주교	3 (1.5)	17 (4.8)	2 (1.3)
	불교	2 (1.0)	10 (2.8)	1 (.7)
	기 타	1 (.5)	4 (1.1)	1 (.7)
	종교없음	43 (21.5)	127 (36.1)	32 (21.2)
	무응답	-	14 (4.0)	-
Total	200 (100.)	352 (100.)	151 (100.)	151 (100.)

* : 전우택 등(2004)에 제시되어 있는 빈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2004년도 조사에서 무응답 등을 보완하여 다시 빈도를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집단 1 : 2001년도 조사 대상군 중 향후 연구 대상군으로 선정된 200명 집단, 집단 2 : 2001년도 조사 대상군 중 향후 연구 대상군으로 선정되지 않은 집단, 집단 3 : 집단 1의 200명 중 2004년도 조사에 응한 151명의 2001년도 응답 내용, 집단 4 : 집단 1의 200명 중 2004년도 조사에 응한 151명의 2004년도 응답 내용

년도 조사에서 집단 1은 남자 117명(58.5%), 여자 83명(41.5%)로 구성되었고, 집단 2는 남자 278명(79.0%), 여자 74명(21.0%)으로 집단 1에 비하여 집단 2에서 남자의 비율이 높았다. 집단 1의 응답자들 중 2차 조사에 응답한 151명(집단 3, 4) 중 남자는 86명(57.0%), 여자는 65명(43.0%)로 집단 1의 남녀 비율과 유사하였다. 2001년도 조사에서 연령분포는 집단 1의 경우 30세 미만이 33.0%, 30~39세 38.0%, 40~49세 17.5%, 50세 이상 11.0%였고, 집단 2는 30세 미만이 34.0%, 30~39세 29.5%, 40~49세 17.3%, 50세 이상 18.8%로 집단 2의 연령이 약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추적조사에 응한 151명(집단 3, 4)의 연령분포는 2001년 당시 30세 미만이 34.4%, 30~39세 36.4%, 40~49세 15.9%, 50세 이상 16.6%로 집단 1의 연령분포와 유사하였다.

2001년도 조사에서 취업형태는 집단 1의 경우 정규직 24.5%, 계약직 9.5%, 자영업 5.0%, 무직(주부, 학생, 실업 등) 61.0%였고, 집단 2는 정규직 25.0%, 계약직 18.8%, 자영업 8.2%, 무직(주부, 학생, 실업 등) 48.0%로 집단 1에 비하여 집단 2에서 계약직의 비율이 다소 높았고, 무직의 비율이 낮았다. 추적조사에서는 집단 3(2001년 조사)에서의 취업형태가 정규직 24.5%, 계약직 9.3%, 자영업 6.0%, 무직(주부, 학생, 실업 등) 60.3%으로 집단 1의 비율과 유사하였으며, 집단 4(2004년 조사)에서는 정규직 35.8%, 계약직 31.8%, 자영업 12.6%, 무직(주부, 학생, 실업 등) 19.9%로, 집단 3보다 집단 4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자영업의 비율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종교는 집단 1의 경우 개신교 75.5%, 천주교 1.5%, 불교 1.0% 기타 0.5%, 없음 21.5%였고, 집단 2는 개신교 51.1%, 천주교 4.8%, 불교 2.8% 기타 1.1%, 없음 36.1%로 집단 1에 비하여 집단 2에서 개신교의 비율을 낮았고, 종교 없음의 비율을 높았다. 집단 3(2001년 조사)에서는 개신교 76.2%, 천주교 1.3%, 불교 0.7% 기타 0.7%, 없음 21.2%로 집단 1의 비율과 유사하였으며, 집단 4(2004년 조사)에서는 개신교 61.6%, 천주교 1.3%, 기타 0.7%, 없음 36.4%로 집단 3에 비하여 집단 4에서 개신교의 비율을 줄어들고, 종교 없음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2001년도 조사에서의 집단 1과 이들 중 추적조사에 응한 151명의 전체적인 인구학적 성향은 매우 유사하므로, 추적 2004년도 조사결과와 2001년 조사결과를 비교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년 기간에 따른 전제적인 의식변화 양상

의식 문항 별 변화

본 연구에 응답한 151명이 2001년도(집단 3)와 2004년도(집단 4)에 응답한 의식 조사 문항에 있어 평균점수간 차이검증을 수행한 결과(related-samples t-test)가 표 2에 나와 있다. 여기서 시기에 따른 응답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항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즉 지난 3년간 북한이탈주민들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이 더 있게 되었고($t=-3.3342$, $p<.001$), 젊은 남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느끼고 있으나($t=2.098$, $p<.05$),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1.968$, $p<.05$). 그리고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으며($t=-2.715$, $p<.01$), 북한 이탈주민들끼리의 큰 단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의견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t=-3.618$, $p<.001$). 또한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들었으며($t=2.956$, $p<.01$), 정부의 주택지원 정책($t=2.473$, $p<.05$), 의료지원($t=4.997$, $p<.001$), 취업지원($t=2.571$, $p<.05$), 정착지원금 지원($t=3.540$, $p<.001$) 등에 대한 만족도가 줄었으며, 그에 따라 전체적인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t=4.038$, $p<.001$).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북한 출신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t=2.683$, $p<.01$).

이 결과에서 흥미 있는 것은 3년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항목들이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3년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남한 언어의 이해, 남한 사회는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 보는 것,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고 보는 것, 터놓고 이야기 할 북한 주민이 있는 것, 남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움.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한다는 느낌.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나 여전히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남한에서의 전체적인 생활에 대한 만족도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결혼을 북한 출신과 하는 것, 통일 후 남북 사람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통계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이 표에서 흥미 있는 결과 중 하나는 집단 1, 2 간의 차이와 집단 3, 4 간의 차이에서 보이는 양상의 차이였다. 집단 1과 2는 그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남한에서 생활한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집단 3과 집단 4는 같은

Table 2. 의식 문항 평균점수의 집단간 비교

Item	1차 조사		t	추적 조사		t
	2001년 집단 1 (n=200)	2001년 집단 2 (n=352)		2001년 집단 3 (n=151)	2004년 집단 4 (n=151)	
1. 남한 언어를 이해한다	3.96 (1.00)	3.99 (.96)	-.335	3.96 (1.01)	3.92 (1.03)	.419
2. 남한 사회는 스스로 성공할 수 있는 사회	4.37 (1.01)	3.99 (1.16)	3.795 [†]	4.33 (1.05)	4.30 (.90)	.248
3.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인 것 같다	4.29 (.92)	4.47 (.80)	-2.304*	4.33 (.91)	4.18 (.89)	1.798
4. 남한 사회 이해한다	3.37 (1.08)	3.52 (.99)	-1.582	3.34 (1.05)	3.48 (.89)	-1.480
5. 남한 사람들은 북한 사회를 이해한다	1.97 (1.01)	1.89 (.86)	1.061	1.97 (1.02)	2.03 (.96)	-.536
6. 터놓고 이야기 할 남한 사람이 있다	3.17 (1.42)	3.17 (1.36)	.006	3.13 (1.45)	3.50 (1.13)	-3.342 [†]
7. 터놓고 이야기 할 북한이탈주민이 있다	3.59 (1.41)	3.54 (1.38)	.377	3.53 (1.39)	3.51 (1.21)	.150
8. 남한 사람들과 친해지기 어려움	3.35 (1.44)	3.39 (1.34)	-.335	3.36 (1.40)	3.30 (1.28)	.434
9. 남한 사람들과 경쟁하기 어려움	3.26 (1.30)	3.38 (1.31)	-1.045	3.20 (1.31)	3.20 (1.17)	.059
10. 젊은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움	3.43 (1.15)	3.37 (1.25)	.514	3.46 (1.11)	3.25 (1.14)	2.098*
11. 나이 든 남한 사람들을 이해하기 어려움	2.66 (1.08)	2.77 (1.16)	-1.088	2.63 (1.00)	2.84 (1.00)	-1.968*
12.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함	2.79 (1.25)	3.11 (1.28)	-2.819*	2.81 (1.23)	2.59 (1.19)	1.893
13. 취업이 힘든 것은 남한 사람들의 편견 때문	3.49 (1.23)	3.55 (1.26)	-.472	3.48 (1.20)	3.36 (1.20)	.935
14. 북한이탈주민들은 자립하려는 의지 부족	2.79 (1.30)	2.70 (1.31)	.824	2.88 (1.28)	3.20 (1.02)	-2.715 [†]
15. 북한이탈주민들끼리 큰 단체가 필요하다	2.98 (1.43)	3.36 (1.42)	-2.915*	2.93 (1.39)	3.39 (1.22)	-3.618 [†]
16. 북한이탈주민들끼리 단체에 참여하겠다	2.93 (1.43)	3.24 (1.45)	-2.330*	2.96 (1.39)	3.15 (1.28)	-1.341
17.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3.34 (1.12)	3.52 (1.28)	-1.668	3.32 (1.10)	3.26 (1.19)	.516
18. 5년 후 경제적으로 더 잘살고 있을 것이다	4.17 (.94)	3.68 (1.23)	4.789 [†]	4.11 (.95)	4.00 (.92)	1.301
19.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만족한다	3.91 (1.11)	3.52 (1.21)	3.747 [†]	3.84 (1.16)	3.68 (1.00)	1.357
20. 현재 내가 사는 집과 방에 만족한다	3.72 (1.24)	3.36 (1.30)	3.185 [†]	3.61 (1.28)	3.40 (1.14)	1.584
21.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한다	3.75 (1.27)	3.34 (1.28)	3.498 [†]	3.68 (1.28)	3.79 (1.03)	-.921
22. 현재 나의 수입에 대하여 만족한다	3.02 (1.32)	2.62 (1.25)	3.420 [†]	3.00 (1.32)	2.88 (1.09)	.862
23. 현재 나의 신체적인 건강 상태에 만족한다	3.57 (1.26)	3.49 (1.30)	.681	3.55 (1.29)	3.23 (1.18)	2.956 [†]
24. 나는 나의 심리적/정신적 상태에 만족한다	3.51 (1.27)	3.29 (1.30)	1.951	3.57 (1.20)	3.59 (1.01)	-.174
25. 현재 나의 여가생활에 만족한다	3.36 (1.22)	2.95 (1.24)	3.702 [†]	3.25 (1.25)	3.06 (1.07)	1.615
26. 현재 나의 가정 생활에 만족한다	3.93 (1.18)	3.75 (1.17)	1.515	3.97 (1.21)	3.91 (1.03)	.464
27. 현재 남한에서 나의 생활 전체에 만족한다	3.60 (1.09)	3.28 (1.12)	3.165 [†]	3.52 (1.08)	3.56 (.86)	-.393
28. 자녀를 남한에 살게 해준 것이 큰 보람이다	4.34 (1.17)	4.37 (1.00)	-.190	4.27 (1.21)	4.30 (.88)	-.205
29. 나의 자녀들의 남한 생활적응에 만족한다	4.05 (1.15)	3.73 (1.08)	1.960*	4.13 (1.10)	4.02 (1.02)	.880
30. 정부의 주택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3.72 (1.24)	3.28 (1.35)	3.700 [†]	3.67 (1.26)	3.38 (1.14)	2.473*
31. 정부의 교육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3.91 (1.14)	3.53 (1.22)	3.491 [†]	3.89 (1.14)	3.73 (.98)	1.669
32. 정부의 의료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4.32 (.94)	4.05 (1.09)	2.960 [†]	4.32 (.95)	3.75 (1.15)	4.997 [†]
33. 정부의 취업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3.18 (1.38)	2.62 (1.39)	4.478 [†]	3.16 (1.35)	2.84 (1.17)	2.571*
34. 정부의 정착지원금 지원 내용에 만족한다	3.74 (1.21)	2.99 (1.46)	6.057 [†]	3.70 (1.20)	3.32 (1.10)	3.540 [†]
35. 정부의 지원 정책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3.79 (1.11)	3.00 (1.31)	7.147 [†]	3.76 (1.13)	3.39 (.95)	4.038 [†]
36.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다	2.44 (1.31)	2.62 (1.28)	-1.574	2.48 (1.31)	2.41 (1.06)	.639
37. 어떤 직업/무슨 일을 하야할지 잘 모르겠다	2.38 (1.29)	2.66 (1.38)	-2.332*	2.40 (1.28)	2.31 (1.10)	.816
38. 때로 내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다	2.27 (1.30)	2.64 (1.42)	-2.936*	2.22 (1.27)	2.18 (1.13)	.335
39. 옳게 사는 것에 대하여 고민한다	2.63 (1.48)	2.91 (1.43)	-2.133*	2.60 (1.46)	2.61 (1.25)	-.104
40.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당당히 밝히며 산다	3.35 (1.48)	3.01 (1.56)	2.484*	3.36 (1.46)	3.44 (1.35)	-.605
41.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면 기분 나쁘다	2.63 (1.39)	2.47 (1.34)	1.322	2.57 (1.38)	2.38 (1.20)	1.625
42. 남북 축구시합을 한다면 북한을 응원하겠다	2.89 (1.36)	2.62 (1.35)	2.176*	2.85 (1.34)	2.72 (1.26)	1.215
43. 만일 결혼한다면 북한 출신 사람과 하겠다	2.91 (1.49)	2.89 (1.45)	.134	2.93 (1.47)	2.71 (1.35)	1.670
44. 나의 자녀는 북한 출신과 결혼하기 원한다	2.40 (1.39)	2.38 (1.38)	.190	2.55 (1.49)	2.10 (1.13)	2.683 [†]
45. 나는 죽으면 북한 땅에 묻하고 싶다	3.18 (1.60)	3.15 (1.65)	.215	3.12 (1.62)	3.12 (1.49)	.000
46. 통일후 남북 사람들은 서로 이해할 것이다	2.91 (1.36)	2.70 (1.34)	1.716	2.82 (1.30)	2.73 (1.25)	.743

표안의 값은 평균(표준편차)임

* : p<.05, † : p<.01, ‡ : p<.001

사람들이지만, 남한에서 살았던 기간의 차이가 있었다. 즉 집단 1, 2와 집단 3, 4는 모두 남한 내에서 살았던 기간의 차이를 가고 있었는데, 집단 1, 2 간의 차이와 집단 3, 4 간의 차이에는 다른 양상이 있었다.

즉 집단 1, 2 간의 차이에서, 남한에 더 오래 살았던 집단 2는 집단 1에 비하여 남한 사회가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성공할 수 있는 사회라는 인식이 더 없고($t=3.795$, $p<.001$), 남한에서는 돈이 최고라는 인식은 더 강하며($t=-2.304$, $p<.05$),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한다는 생각이 더 강하고($t=-2.819$, $p<.01$), 북한 이탈주민들끼리의 단체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더 강하고($t=-2.330$, $p<.05$), 5년 뒤에 경제적으로 더 잘살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적었으며($t=4.789$, $p<.001$),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더 혼란스러워 하였고($t=-2.332$, $p<.05$), 스스로가 누구인지 혼란스러움이 더 컸고($t=-2.936$, $p<.05$), 옳게 사는 것에 대하여 더 고민하고 있으며($t=-2.133$, $p<.05$), 북한 출신이라는 것을 더 적게 나타내며($t=2.484$, $p<.05$), 남북한 축구 시합을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는 경우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었다($t=2.176$, $p<.05$). 그러나 이러한 차이들이 집단 3과 4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었다.

반대로 집단 1, 2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집단 3, 4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은 집단 4가 더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이 더 있게 되었다는 것($t=-3.3342$, $p<.001$), 젊은 남한 사람들을 더 많이 이해한다고 느끼고 있으나($t=2.098$, $p<.05$), 나이 든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t=-1.968$, $p<.05$), 북한이탈주민들이 자립하려는 의식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더 강해졌으며($t=-2.715$, $p<.01$), 자신의 신체적 건강에 대

한 만족도가 줄어들었고($t=2.956$, $p<.01$), 그리고 자신의 자녀가 북한 출신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줄어든 것 등이었다($t=2.683$, $p<.01$).

의식 요인의 변화

2001년도에 실시한 조사¹⁵⁾에서 의식에 대한 46개의 문항이 12개의 요인으로 구분되었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 2001년도와 2004년도에 본 연구에 응답한 내용을 12개의 요인으로 구분하여 평균점수간 차이검증을 수행한 결과(related-samples t-test)가 표 3에 나와 있다. 151명이 2001년도(집단 3)와 2004년도(집단 4)에 응답한 것을 의식 요인으로 구분하여 보았을 때, 북한 이탈주민 간 단결 요인($t=-2.654$, $p<.01$)과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요인($t=4.828$, $p<.001$)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요인들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즉,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북한이탈주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끼리 더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정부지원정책 만족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항목은 2001년도 1차 조사 시 집단 1과 2에서도 차이로 나타나는 항목이었다.

또한 2001년도 연구에서 집단 1과 집단 2의 의식 평균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던 요인들 중, 2004년도의 집단 3과 집단 4의 차이에서 정신신체건강 만족도와 주거 만족도는 추적조사에서 유의한 변화는 없었지만, 유의수준에 근접하는 변화양상이 나타났다(모두 $p<.10$). 즉, 거주기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면,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는 감소하고, 주거 만족도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 2001년 연구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지만, 추적조사에서 유의한

Table 3. 의식 요인 평균점수의 집단간 비교

	1차 조사		†	추적 조사		†
	2001년 집단 1 (n=200)	2001년 집단 2 (n=352)		2001년 집단 3 (n=151)	2004년 집단 4 (n=151)	
1. 경제생활 만족도	3.25 (.86)	2.92 (.91)	4.119 [†]	3.21 (.86)	3.22 (.74)	-.134
2. 가치관 혼란	2.43 (1.06)	2.71 (1.07)	-2.988 [†]	2.42 (1.05)	2.39 (.86)	.359
3.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2.96 (1.33)	3.31 (1.35)	-2.886 [†]	2.95 (1.30)	3.27 (1.14)	-2.654 [†]
4.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78 (.87)	3.25 (.97)	6.252 [†]	3.75 (.88)	3.40 (.77)	4.828 [†]
5.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17 (.83)	3.24 (.88)	-.850	3.16 (.82)	3.14 (.85)	.342
6.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90 (1.05)	2.76 (1.02)	1.474	2.85 (1.05)	2.74 (.93)	1.294
7.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48 (.98)	3.24 (1.01)	2.668 [†]	3.46 (.99)	3.29 (.82)	1.900
8.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38 (1.12)	3.36 (1.10)	.249	3.34 (1.14)	3.50 (.88)	-1.855
9. 주거 만족도	3.81 (1.08)	3.44 (1.08)	3.857 [†]	3.72 (1.12)	3.53 (.94)	1.713
10.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67 (.85)	3.76 (.81)	-1.159	3.66 (.84)	3.70 (.79)	-.642
11. 남한사람들의 편견	3.14 (1.06)	3.34 (1.07)	-2.021*	3.14 (1.04)	2.97 (.97)	1.716
12. 미래에 대한 전망	4.27 (.74)	3.83 (.97)	5.395 [†]	4.22 (.78)	4.15 (.69)	.926

표안의 값은 평균(표준편차)임

* : $p<.05$, † : $p<.01$, ‡ : $p<.001$

Table 4. 2001년 조사의 의식요인들간 상관과 2004년 추적조사의 의식요인들간 상관 (n=151)

	1 경제적 만족도	2 가치관 혼란	3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4 정부지원 정책 만족도	5 남한사람 이해	6 북에대한 관련도	7 정신신체 만족도	8 터놓고 대상	9 이야기할 대상	10 주거 만족도	11 남한사회 언어이해	12 남한 사람들 의 편견	미래 전망
1	1.000												
		1.000											
2	-.249 [†]	1.000											
		-.419 [†]	1.000										
3	-.179 [*]	.029	1.000										
		.076	.000	1.000									
4	.352 [†]	-.194 [*]	-.163 [*]	1.000									
		.193 [*]	-.141	.006	1.000								
5	.011	.348 [†]	.122	-.038	1.000								
		-.274 [†]	.133	.154	-.035	1.000							
6	.178 [*]	.219 [†]	.060	.029	.101	1.000							
		-.126	.149	-.009	-.047	-.012	1.000						
7	.399 [†]	-.336 [†]	-.040	.386 [†]	-.024	.035	1.000						
		.429 [†]	-.300 [†]	-.056	.262 [†]	-.099	.072	1.000					
8	.168 [*]	-.271 [†]	.187 [*]	.112	-.231 [†]	.114	.254 [†]	1.000					
		.125	-.081	.035	.059	-.123	.111	.122	1.000				
9	.385 [†]	-.011	-.160	.290 [†]	.083	.025	.294 [†]	.049	1.000				
		.178 [*]	-.023	.217 [†]	.217 [†]	.206 [*]	-.098	.183 [*]	.074	1.000			
10	.084	-.207 [*]	.105	.033	-.198 [*]	-.187 [*]	.125	.331 [†]	.022	1.000			
		.218 [†]	-.309 [†]	-.021	.213 [†]	-.214 [†]	.045	.398 [†]	.227 [†]	.020	1.000		
11	-.113	.200 [*]	.274 [†]	-.231 [†]	.229 [†]	.124	-.047	-.067	-.102	.026	1.000		
		-.311 [†]	.038	.008	-.227 [†]	.295 [†]	.014	-.028	.010	.086	-.056	1.000	
12	.422 [†]	-.095	-.087	.280 [†]	-.029	-.060	.202 [*]	.113	.283 [†]	.288 [†]	-.029	1.000	
		.393 [†]	-.320 [†]	.140	.122	-.168 [*]	.014	.374 [†]	.056	.126	.445 [†]	-.188 [*]	1.000

표안의 값은 요인간 상관계수로, 위의 값은 2001년 조사에서 집단 3의 요인간 상관계수이고 아래의 값은 2004년도 추적조사에서의 집단 4의 요인간 상관계수이다

* : p<.05, † : p<.01, ‡ : p<.001

차이(혹은 경향성)가 없었던 경제생활 만족도, 가치관 혼란, 남한사람들의 편견, 미래에 대한 전망 요인은 2000년 이전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들에 한정된 결과일 가능성도 있으며, 이것은 추후 계속된 추적 조사를 통하여 좀더 관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의식요인 간 상관관계의 변화

2001년 집단 3의 의식요인들 간 상관과 2004년 집단 4의 의식요인들 간 상관의 차이를 탐색하기 위하여 표 4와 같이 의식요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정신신체 만족도와 다른 요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경제적 만족도(2001년 r=.399, 2004년 r=.429), 가치관 혼란(2001년 r=-.336, 2004년 r=-.300)과의 상관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부지원정책 만족도(2001년 r=.386, 2004년 r=.262),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2001년 r=.254, 2004년 r=.122), 주거만족도(2001년 r=.294, 2004년 r=.183)와의 상관은 2004년 추적조사에서 감소한 반면, 남한사회 및 언어 이해(2001년 r=.125, 2004년 r=.398)와 미래전망(2001년 r=.202, 2004년 r=.374)과의 상관

은 2004년 추적조사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한사회 및 언어이해와 미래에 대한 전망은 정신신체 만족도와 관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가치관 혼란과 다른 요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남한사람 이해 혼란도(2001년 r=.384, 2004년 r=.133)와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2001년 r=-.271, 2004년 r=-.081)과의 상관은 감소한 반면, 경제적 만족도(2001년 r=-.249, 2004년 r=-.419), 남한사회 및 언어 이해(2001년 r=-.207, 2004년 r=-.309), 미래전망(2001년 r=-.095, 2004년 r=-.395)과의 상관은 증가하였다. 즉, 거주 기간이 길어질수록 경제적 만족도와 남한사회 및 언어 이해, 미래에 대한 전망은 가치관 혼란과 관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 경제적 만족도(2001년 r=.422, 2004년 r=.393),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2001년 r=.280, 2004년 r=.122), 주거 만족도(2001년 r=.283, 2004년 r=.126) 등과의 상관관계는 줄어든 반면에, 가치관 혼란(2001년 r=-.095, 2004년 r=-.320), 남한사람 이해의 혼란(2001년 r=-.029, 2004년 r=-.168), 정

Table 5. 2001년 조사와 2004년 추적조사의 의식요인들간 상관

	2004년 추적 조사 (n=151)											
	1 경제적 만족도	2 가치관 혼란	3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4 정부지원 정책 만족도	5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	6 북에대한 심리동조	7 정신신체 만족도	8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9 주거 만족도	10 남한사회 만족도	11 남한 사람 언어이해 들의 편견	12 미래 전망
2001년 집단 1 (n=151)	1 .204*	-.060	-.177*	.114	-.047	.156	.205*	.087	.130	.235†	-.164*	.165*
	2 -.306†	.442†	-.013	-.185*	.186*	.081	-.353†	-.143	-.140	-.267†	.099	-.352†
	3 .016	.005	.295†	-.088	.037	.017	-.035	.075	.055	.071	.012	.052
	4 .156	-.153	-.029	.428†	-.186*	.089	.222†	.059	-.001	.163*	-.191*	.233†
	5 -.177*	.149	.041	-.052	.504†	.058	-.009	-.116	.085	-.097	.157	-.065
	6 -.035	.077	-.091	.040	-.153	.525†	-.022	.116	-.061	-.042	.003	-.048
	7 .122	-.163*	-.042	.085	-.080	.109	.309†	.119	.012	.108	-.028	.325†
	8 .162*	-.135	-.046	.051	-.211†	.019	.090	.433†	-.042	.215†	-.149	.186*
	9 .066	-.028	-.168*	.142	-.005	-.105	-.018	-.110	.175*	-.105	-.105	.078
	10 .138	-.142	.084	-.024	-.178*	-.001	.071	.151	-.021	.412†	.032	.337†
	11 -.169*	.118	.068	-.217†	.180*	.202*	-.145	.094	-.005	-.063	.276†	.066
	12 .066	-.036	-.075	.069	.059	.027	.019	-.023	.006	.217†	-.195*	.292†

*: p<.05, †: p<.01, ‡: p<.001

신신체만족도(2001년 $r=.202$, 2004년 $r=.374$), 남한 사회 및 언어의 이해(2001년 $r=.288$, 2004년 $r=.445$), 남한 사람들의 편견 등(2001년 $r=-.029$, 2004년 $r=-.188$)과의 상관관계는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집단 1의 의식요인 점수와 2004년 추적조사의 의식요인 점수 간 관련성을 파악하고, 의식요인 점수들의 안정성 및 의식요인간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은 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먼저, 시간경과(2001년 조사와 2004년 추적조사)에 따른 동일 요인 간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가치관 혼란($r=.442$), 정부지원정책 만족도($r=.428$), 남한사람 이해 곤란도($r=.504$),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r=.525$),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r=.433$),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r=.412$)는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시간경과가 있어도 비교적 일정한 응답을 하는 의식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에 경제적 만족도($r=.204$)와 주거만족도($r=.175$)는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여, 시간경과에 따라 가변적인 의식요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r=.295$), 정신신체 만족도($r=.309$), 남한 사람들의 편견($r=.276$), 미래전망($r=.292$)은 0.3 전후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시간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요인들 간의 교차상관계수를 살펴보면, 2001년 가치관 혼란과 2004년 경제적 만족도간 상관($r=-.306$)이 2001년 경제적 만족도와 2004년 가치관 혼란 간 상관($r=-.06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 만족도가 가치관 혼란의 원인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만족도가 가치관 혼란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001년 가치관 혼란과 2004년 정신신체 만족도가 상관($r=-.353$)이 2001년 정신신체만

족도와 2004년 가치관 혼란 간 상관($r=-.16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 혼란이 정신신체 만족도의 원인일 가능성을 보였다. 또한, 2001년 가치관 혼란과 2004년 미래전망 간 상관($r=-.352$)이 2001년 미래전망과 2004년 가치관 혼란 간 상관($r=-.03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치관 혼란이 미래전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2001년 정부지원정책 만족도와 2004년 미래전망 간 상관($r=.233$)이 2001년 미래전망과 2004년 정부지원정책 만족도간 상관($r=.069$)보다 높게 나타나, 정부지원정책 만족도가 미래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였으며, 2001년 정신신체 만족도와 2004년 미래전망 간 상관($r=.325$)이 2001년 미래전망과 2004년 정신신체 만족도와의 상관($r=.019$)보다 높아 정신신체 만족도가 미래에 대한 전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2004년도에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에 대한 반응을 보인 것은 2001년도 반응과 크게 상관있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일하게 주거만족도($r=-.168$)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1년도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 반응이 2004년도 반응과 상관있는 것으로 나타난 요인은 없었다. 즉 북한이탈주민 간 단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이 다른 요인들과는 큰 상관이 없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의식 변화

성별에 따른 의식 변화

성별에 따른 의식의 변화 양상이 표 6에 정리되어 있다. 2001년 조사 결과, 성별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나타났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 의식 요인들은 가

Table 6. 성별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성별		F	2004년 성별		F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경제생활만족도	3.16 (.83)	3.28 (.91)	.790	3.15 (.71)	3.31 (.78)	1.750
가치관 혼란	2.25 (.99)	2.63 (1.10)	4.733*	2.44 (.86)	2.31 (.87)	.821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3.01 (1.38)	2.88 (1.22)	.382	3.22 (1.16)	3.30 (1.16)	.202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64 (.90)	3.84 (.98)	1.606	3.43 (.77)	3.35 (.78)	.399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17 (.79)	3.15 (.87)	.028	3.20 (.83)	3.07 (.88)	.823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70 (1.04)	3.04 (1.05)	3.999*	2.73 (.87)	2.75 (1.03)	.031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62 (.95)	3.26 (1.03)	4.789*	3.41 (.80)	3.14 (.84)	4.067*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55 (1.04)	3.06 (1.21)	7.195†	3.52 (.95)	3.48 (.80)	.051
주거 만족도	3.72 (1.19)	3.72 (1.05)	.000	3.53 (.91)	3.54 (.97)	.003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81 (.81)	3.46 (.86)	6.465*	3.70 (.78)	3.71 (.81)	.009
남한사람들의 편견	3.14 (1.07)	3.14 (1.02)	.002	3.04 (.96)	2.89 (.98)	.951
미래에 대한 전망	4.24 (.77)	4.19 (.80)	.142	4.22 (.67)	4.06 (.72)	1.923

* : p<.05, † : p<.01

Table 7. 연령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연령				F ¹⁾ (선형)	F ²⁾ (곡선형)	2004년 연령				F (선형)	F (곡선형)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이상		
경제생활 만족도	3.39 (.67)	3.18 (.94)	3.16 (.92)	2.89 (.97)	4.466*	.002	3.36 (.59)	3.30 (.76)	2.99 (.67)	3.10 (.89)	3.658	.090
가치관 혼란	2.41 (.95)	2.25 (.99)	2.61 (1.20)	2.68 (1.27)	1.309	1.157	2.49 (.78)	2.31 (.86)	2.49 (.97)	2.30 (.87)	.169	.117
북한이탈 주민간 단결	3.02 (1.24)	2.84 (1.28)	2.98 (1.46)	3.08 (1.46)	.014	.600	3.17 (1.10)	3.15 (1.10)	3.32 (1.24)	3.58 (1.27)	2.146	.588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77 (.86)	3.93 (.97)	3.41 (.89)	3.43 (.96)	3.397	1.314	3.29 (.76)	3.52 (.84)	3.21 (.75)	3.41 (.58)	.019	.503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2.98 (.66)	3.02 (.78)	3.16 (.97)	4.07 (.57)	22.782†	9.108†	2.66 (.63)	3.05 (.85)	3.25 (.73)	3.91 (.72)	36.489†	.450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3.16 (1.00)	2.79 (1.09)	2.59 (1.05)	2.47 (.95)	8.072†	.557	2.96 (1.04)	2.78 (.92)	2.64 (.76)	2.43 (1.01)	4.777*	.004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68 (.80)	3.38 (.99)	3.34 (1.15)	3.25 (1.27)	3.354	.597	3.37 (.67)	3.32 (.85)	2.99 (.78)	3.47 (.95)	.070	2.007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77 (.97)	3.19 (1.20)	3.17 (1.00)	2.79 (1.22)	12.162†	.960	3.64 (.84)	3.60 (.82)	3.23 (.87)	3.35 (1.07)	3.320	.022
주거 만족도	3.67 (1.02)	3.79 (1.07)	3.65 (1.33)	3.71 (1.38)	.001	.144	3.17 (.73)	3.56 (1.01)	3.73 (.75)	3.71 (1.08)	5.326*	1.767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60 (.76)	3.71 (.88)	3.70 (.79)	3.63 (1.05)	.087	.412	3.88 (.73)	3.71 (.75)	3.55 (.91)	3.65 (.85)	1.744	.713
남한사람들의 편견	3.04 (.80)	3.20 (.99)	3.15 (1.31)	3.24 (1.43)	.512	.138	2.84 (.96)	2.95 (.99)	2.93 (.91)	3.27 (.97)	2.198	.277
미래에 대한 전망	4.14 (.74)	4.38 (.72)	4.30 (.70)	3.82 (1.03)	1.006	7.565†	4.14 (.61)	4.28 (.60)	3.96 (.84)	4.02 (.81)	1.807	.682

1) 연령과 의식요인점수가 선형적 관계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검증, 2) 연령과 의식요인점수가 포물선 관계성을 가지는 것에 대한 검증

* : p<.05, † : p<.01, ‡ : p<.001

치관 혼란($F=4.733$, $p<.05$)으로 여성들이 더 가치감 혼란이 있으며,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도 더 하고 있었으며 ($F=3.999$, $p<.05$), 이에 비하여 남성들이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가 더 높았고($F=4.789$, $p<.05$),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도 많이 있었으며($F=7.195$, $p<.05$), 남한 사회 및 언어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F=6.465$, $p<.05$). 그러나 2004년도 조사에서는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에 있어 여전히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높은 것($F=4.067$, $p<.05$)을 제외하고는 모든 남녀간의 유의하였던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가치감 혼란에 있어 1차 조사에서는 여성의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2차 조사에서는 남성이 약간 더 심

Table 8.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F	2004년			F
	고등중이하	전문학교/단과대학	대학		고등중이하	전문학교/단과대학	대학	
경제생활만족도	3.30 (.84)	3.00 (.89)	3.11 (.89)	1.454	3.18 (.74)	3.20 (.70)	3.34 (.77)	.597
가치관 혼란	2.51 (1.07)	2.51 (1.14)	2.12 (.90)	1.816	2.42 (.90)	2.43 (.61)	2.23 (.90)	.690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2.84 (1.29)	3.30 (1.24)	3.04 (1.37)	1.198	3.16 (1.11)	3.39 (1.33)	3.43 (1.17)	.855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75 (.99)	3.74 (.77)	3.67 (.92)	.093	3.37 (.78)	3.41 (.78)	3.45 (.77)	.137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26 (.82) ^a	3.27 (1.00) ^a	2.84 (.63) ^b	3.710*	3.21 (.87)	3.01 (.87)	3.04 (.78)	.754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92 (1.10)	2.95 (1.08)	2.58 (.91)	1.474	2.83 (.97)	2.64 (1.09)	2.54 (.71)	1.373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57 (1.04)	3.24 (.98)	3.31 (.85)	1.497	3.26 (.80)	3.32 (.86)	3.38 (.89)	.304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23 (1.16)	3.34 (1.29)	3.61 (.98)	1.444	3.47 (.90)	3.55 (.95)	3.57 (.81)	.201
주거 만족도	3.84 (1.07)	3.23 (1.29)	3.71 (1.10)	2.685	3.56 (.95)	3.57 (.88)	3.43 (.95)	.281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56 (.85)	3.70 (.95)	3.87 (.75)	1.733	3.66 (.74)	3.70 (1.02)	3.83 (.78)	.577
남한사람들의 편견	3.16 (1.03)	3.41 (1.03)	2.93 (1.08)	1.467	2.91 (.97)	2.98 (.93)	3.13 (.99)	.619
미래에 대한 전망	4.32 (.82)	3.95 (.74)	4.10 (.65)	2.527	4.14 (.70)	4.25 (.87)	4.11 (.53)	.287

* : p<.05, ab : Tukey HSD 사후검증

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즉 남성은 3년간의 남한 사회생활을 통하여 가치관의 혼란이 더 심해져 간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들은 급속히 가치감의 혼란이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에 있어서도 처음 남한에 들어 온 시기에 여성들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 동안 남성들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에 비하여 여성들은 급격히 줄어 남성들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을 가지는 것도 남한 사회 적응 초기에는 남성들이 더 많았으나, 그 후 여성들은 그런 대상이 급격히 증가한 것에 비하여 남성들은 오히려 약간 숫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 사회 및 언어의 이해 정도에 대하여도 적응 초기에는 남성들이 여성에 비하여 훨씬 높았으나, 3년 뒤, 여성들은 급격히 증가하여 오히려 남성보다 여성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아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이 시기에 더 급격한 의식의 변화를 체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향후 3년 후에 변화를 더 많이 보일 가능성 마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할 수 있다.

연령에 따른 의식 변화

북한이탈주민들의 연령에 따른 의식의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가 표 7에 있다. 2001년도 1차 조사에서는 연령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의식 요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생활 만족도에서 연령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곤란에 있어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도 젊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 대한 전망에 있어 20대나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30대와 40대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4년도의 2차 조사에서는 남한사회 이해 곤란 정도가 연령이 높을수록 더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것과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가 젊은 사람들에게 더 높은 것 두 가지만이 남아 있고, 그 외 경제생활 만족도에 젊은 충일수록 더 높았던 것,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이 나이가 젊을수록 더 많은 것, 미래에 대한 전망에 20대 이하와 50대 이상에서 더 비관적으로 본 것 등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나 의식의 차이가 연령대 별로 나타난 것은 많이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거 만족도는 2001년도 조사에서는 연령대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4년도 2차 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변화가 생긴 이유는 젊은 세대일수록 주거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었다.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의식의 변화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의식 변화 양상을 분석한 자료가 표 8에 있다. 2001년도 1차 조사에서는 대학 미만의 학력자가 대학 이상의 학력자보다 남한 사람 이해 곤란도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더 높은 어려움을 나타냈었다($F=3.710$, $p<.05$). 그리고 그 외의 요인에서는 학력에 따른 의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4년도 조사에서는 남한 사람 이해 곤란도 요인에서 조차 학력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서의 학력에 따른 의식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한편 학력별 변화추이를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에서의 학력이 전문학교 이상인 사람들은 경제생활 만족도와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가 상승하는 경

Table 9. 북한에서의 노동당원 여부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F	2004년		F
	노동당원	당원아님		노동당원	당원아님	
경제생활만족도	2.98 (1.01)	3.33 (.77)	5.324*	3.21 (.85)	3.23 (.68)	.017
가치관 혼란	2.26 (1.02)	2.50 (1.06)	1.723	2.28 (.98)	2.43 (.80)	.985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2.95 (1.51)	2.96 (1.20)	.001	3.33 (1.23)	3.22 (1.12)	.314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57 (.93)	3.81 (.94)	2.133	3.44 (.81)	3.37 (.76)	.262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28 (.85)	3.10 (.81)	1.525	3.48 (.77)	2.97 (.85)	12.591†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65 (1.01)	2.95 (1.07)	2.679	2.80 (.81)	2.71 (1.00)	.331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51 (1.18)	3.44 (.90)	.201	3.42 (.87)	3.23 (.80)	1.762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33 (1.04)	3.34 (1.19)	.006	3.47 (.89)	3.52 (.89)	.105
주거 만족도	3.65 (1.39)	3.75 (.98)	.256	3.55 (.96)	3.52 (.93)	.024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78 (.87)	3.60 (.83)	1.441	3.71 (.78)	3.70 (.80)	.003
남한사람들의 편견	3.17 (1.22)	3.12 (.95)	.074	3.07 (.99)	2.93 (.95)	.742
미래에 대한 전망	4.13 (.86)	4.26 (.74)	.838	4.14 (.71)	4.15 (.68)	.013

*: p<.05, †: p<.001

Table 10. 북한에서의 군복무경험 유무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F	2004년		F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험있음	경험없음	
경제생활만족도	3.14 (.91)	3.26 (.84)	.678	3.23 (.82)	3.22 (.70)	.005
가치관 혼란	2.27 (1.13)	2.50 (1.00)	1.575	2.33 (.94)	2.41 (.82)	.258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3.16 (1.45)	2.84 (1.21)	2.075	3.29 (1.18)	3.23 (1.15)	.083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64 (.95)	3.78 (.93)	.863	3.39 (.76)	3.40 (.78)	.002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24 (.87)	3.12 (.80)	.777	3.21 (.84)	3.10 (.86)	.524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72 (.96)	2.92 (1.11)	1.315	2.79 (.87)	2.70 (.98)	.312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58 (1.10)	3.39 (.93)	1.270	3.35 (.75)	3.26 (.87)	.340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51 (1.05)	3.24 (1.18)	1.945	3.43 (.88)	3.55 (.89)	.638
주거 만족도	3.81 (1.30)	3.67 (1.01)	.597	3.59 (.92)	3.50 (.95)	.327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87 (.77)	3.54 (.87)	5.552*	3.61 (.80)	3.76 (.78)	1.278
남한사람들의 편견	3.23 (1.07)	3.09 (1.03)	.646	3.09 (.97)	2.91 (.97)	1.276
미래에 대한 전망	4.23 (.76)	4.21 (.80)	.030	4.21 (.62)	4.11 (.73)	.650

*: p<.05

향을 보인 반면에 전문학교 미만인 학력자들은 경제생활 및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가치관 혼란과 관련해서는 대학교 이상의 학력자들은 가치관 혼란이 늘어난 반면에 대학교 미만의 학력자들은 혼란감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즉 이것은 대졸이상의 고학력자들은 주관적인 만족도는 증가하면서도 전반적인 가치관이나 정체감 측면에서는 혼란스러움을 더 겪고 있다는 결과로 이 집단의 의식적 적응의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당원 여부에 따른 의식의 변화

북한에서 노동당원이었던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의식 간의 차이가 표 9에서 분석되었다. 1차 조사에서는 당원과 비당원 사이에 경제생활 만족도에 있어 비당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F=5.324$, $p<.05$), 그 외의 요인에서는 당원과 비당원 간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2차 조사에서는 당원과 비

당원 사이의 경제생활 만족도의 차이가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당원 출신들이 남한 생활 적응 초기에는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경제 여건에서 살았으므로, 남한 생활에 대한 경제적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그것이 나중에는 상당히 증가하여 비당원 출신과 차이가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차 조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2차 조사에서는 남한 사람에 대한 이해 곤란도에 있어 당원 출신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큰 어려움을 이야기하였다 ($F=12.591$, $p<.001$). 이것은 북한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더 엘리트 집단이었던 이들 당원들이 오히려 남한 사람의 이해에 있어서 더 큰 어려움을 보이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흥미 있는 결과였다.

북한에서의 군 복무 경험에 따른 의식의 변화

북한에서의 군 복무 경험에 따른 남한 생활에서의 의식의 차이에 대한 분석이 표 10에 있다. 실제로 남한 사회생

Table 11. 남한에서의 직장 형태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직장				F	2004년 직장				F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	없음		정규직	계약직	자영업	없음	
경제생활만족도	3.63 (.79) ^a	2.79 (.96) ^b	2.83 (.88) ^b	3.14 (.82) ^b	5.060 [†]	3.45 (.74) ^a	3.06 (.64) ^b	3.08 (.94) ^{ab}	3.16 (.68) ^{ab}	2.828*
가치관 혼란	2.20 (1.01)	2.42 (1.03)	1.86 (1.05)	2.56 (1.06)	1.925	2.24 (.83)	2.50 (.91)	2.24 (.82)	2.53 (.87)	1.258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3.04 (1.38)	3.12 (1.42)	2.61 (1.24)	2.93 (1.28)	.334	3.40 (1.13)	3.19 (1.26)	3.37 (1.16)	3.03 (1.04)	.756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56 (1.13)	3.91 (.74)	3.96 (.90)	3.75 (.88)	.751	3.45 (.87)	3.31 (.64)	3.52 (.91)	3.37 (.72)	.423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30 (.87)	3.26 (.74)	2.55 (.72)	3.15 (.81)	2.127	3.16 (.91)	3.17 (.81)	3.00 (.97)	3.13 (.76)	.205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3.02 (1.02)	2.59 (1.27)	2.41 (.91)	2.86 (1.05)	1.106	2.74 (.96)	2.68 (.93)	2.93 (.99)	2.70 (.92)	.335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62 (.97)	3.28 (1.10)	3.56 (.97)	3.41 (1.00)	.531	3.37 (.91)	3.15 (.80)	3.32 (.67)	3.38 (.80)	.773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51 (1.12)	3.35 (1.30)	3.61 (.93)	3.24 (1.15)	.702	3.59 (1.01)	3.56 (.84)	3.53 (.81)	3.23 (.74)	1.197
주거 만족도	3.86 (1.09)	3.27 (1.36)	4.17 (.87)	3.68 (1.12)	1.420	3.67 (.95)	3.54 (.94)	3.50 (.99)	3.30 (.88)	.993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73 (.80)	3.65 (1.03)	4.22 (.75)	3.57 (.83)	1.769	3.81 (.92)	3.60 (.64)	3.87 (.85)	3.57 (.72)	1.184
남한사람들의 편견	3.35 (1.08)	3.38 (1.08)	2.39 (.78)	3.09 (1.02)	2.422	2.85 (.94)	3.05 (1.04)	3.29 (1.02)	2.87 (.85)	1.192
미래에 대한 전망	4.34 (.74)	4.15 (.85)	4.39 (.49)	4.16 (.82)	.627	4.32 (.67)	4.03 (.67)	4.11 (.88)	4.05 (.59)	1.876

* : p<.05, † : p<.01, ab : Tukey HSD 사후검증

Table 12. 남한에서의 종교 유무에 따른 의식 요인의 평균값 비교

(n=151)

	2001년 종교		F	2004년 종교		F
	종교있음	종교없음		종교 있음	종교 없음	
경제생활만족도	3.26 (.83)	3.03 (.97)	1.817	3.15 (.71)	2.35 (.79)	2.577
가치관 혼란	2.43 (1.03)	2.37 (1.13)	.089	2.39 (.79)	2.37 (.99)	.014
북한이탈주민간 단결	2.98 (1.26)	2.86 (1.47)	.209	3.36 (1.09)	3.06 (1.25)	2.392
정부지원정책 만족도	3.76 (.96)	3.61 (.87)	.622	3.38 (.69)	3.43 (.91)	.128
남한사람 이해곤란도	3.22 (.83)	2.96 (.79)	2.442	3.16 (.80)	3.10 (.95)	.186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	2.86 (1.08)	2.80 (.98)	.076	2.71 (.94)	2.78 (.95)	.193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	3.46 (.96)	3.45 (1.14)	.003	3.32 (.79)	3.25 (.89)	.193
터놓고 이야기할 대상	3.34 (1.09)	3.33 (1.32)	.002	3.50 (.85)	3.51 (.95)	.004
주거 만족도	3.75 (1.10)	3.63 (1.24)	.288	3.55 (.91)	3.50 (.99)	.107
남한 사회 및 언어 이해	3.60 (.83)	3.86 (.89)	2.358	3.67 (.81)	3.77 (.77)	.625
남한사람들의 편견	3.17 (1.05)	3.03 (1.04)	.439	2.99 (1.00)	2.95 (.91)	.072
미래에 대한 전망	4.19 (.79)	4.31 (.76)	.609	4.10 (.70)	4.24 (.68)	1.381

활 적응 초기에는 군 출신들이 남한 사회 및 언어의 이해에 더 큰 어려움을 보였으나 ($F=5.552$, $p<.05$), 2004년 2차 조사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에서의 군 복무 경험 유무는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과 의식 변화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유무에 따른 의식 변화

북한이탈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 상황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표 11에 분석되어 있다. 이것은 조사 당시의 시점에서의 직장 상태를 본 것이므로, 그 직장을 가지고 생활한 기간 요소는 고려되지 않은 자료이다. 이 분석 결과, 2001

년의 1차 조사나 ($F=5.060$, $p<.05$), 2004년의 2차 조사 ($F=2.828$, $p<.05$) 모두에서, 정규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른 집단보다 경제생활 만족도에서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그 외 다른 요인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도 일반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전문 직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장은 안정된 수입의 증가만을 의미하고 있고, 그 이상으로 의식의 변화를 만들만큼의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을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종교와 의식과의 상관관계

북한이탈주민 중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가지고 있지 않은 집단들의 의식 요인들의 평균 점수를 본 결과가 표 12에 있다. 2001년의 1차 조사와 2004년 2차 조

Table 13. 성별과 연령에 따른 종교의 내재적, 외현적 점수의 평균값 비교

종교유무	성별	연령집단	내재종교	외현종교
종교있음	남자	20대 (N=8)	3.11 (.39)	3.38 (.34)
		30대 (N=20)	3.09 (.62)	3.24 (.56)
		40대 (N=11)	2.84 (.51)	3.21 (.48)
		50대 이상 (N=14)	3.33 (.75)	3.26 (.67)
		Total (N=53)	3.10 (.62)	3.26 (.54)
종교없음	여자	20대 (N=11)	2.93 (.80)	3.03 (.51)
		30대 (N=15)	3.17 (.72)	3.30 (.36)
		40대 (N=9)	3.66 (.65)	3.78 (.74)
		50대 이상 (N=8)	3.88 (.49)	4.04 (.47)
		Total (N=43)	3.34 (.76)	3.47 (.63)
Total	남자	20대 (N=19)	3.00 (.65)	3.18 (.47)
		30대 (N=35)	3.13 (.66)	3.26 (.48)
		40대 (N=20)	3.21 (.70)	3.47 (.66)
		50대 이상 (N=22)	3.53 (.71)	3.55 (.70)
		Total (N=96)	3.21 (.69)	3.35 (.58)
종교없음	여자	20대 (N=9)	2.31 (.57)	2.72 (.79)
		30대 (N=14)	2.08 (.40)	2.36 (.76)
		40대 (N=6)	1.85 (.20)	1.52 (.81)
		50대 이상 (N=1)	1.50 (.)	1.40 (.)
		Total (N=30)	2.08 (.45)	2.27 (.87)
Total	여자	20대 (N=4)	2.36 (.29)	2.80 (.26)
		30대 (N=16)	2.56 (.61)	3.03 (.51)
		40대 (N=2)	2.31 (.44)	2.25 (.21)
		50대 이상 (N=1)	1.25 (.)	1.20 (.)
		Total (N=23)	2.45 (.60)	2.84 (.61)
Total	남자	20대 (N=13)	2.32 (.49)	2.75 (.66)
		30대 (N=30)	2.33 (.57)	2.72 (.71)
		40대 (N=8)	1.97 (.32)	1.70 (.77)
		50대 이상 (N=2)	1.38 (.18)	1.30 (.14)
		Total (N=53)	2.24 (.55)	2.52 (.81)
Total	여자	20대 (N=17)	2.68 (.63)	3.03 (.69)
		30대 (N=34)	2.67 (.74)	2.88 (.77)
		40대 (N=17)	2.49 (.64)	2.61 (1.02)
		50대 이상 (N=15)	3.20 (.86)	3.14 (.80)
		Total (N=83)	2.73 (.75)	2.90 (.82)
Total	여자	20대 (N=15)	2.78 (.74)	2.97 (.46)
		30대 (N=31)	2.85 (.73)	3.16 (.46)
		40대 (N=11)	3.41 (.81)	3.50 (.91)
		50대 이상 (N=9)	3.59 (.99)	3.72 (1.04)
		Total (N=66)	3.03 (.83)	3.25 (.68)
Total	남자	20대 (N=32)	2.73 (.67)	3.00 (.59)
		30대 (N=65)	2.76 (.73)	3.01 (.65)
		40대 (N=28)	2.85 (.84)	2.96 (1.06)
		50대 이상 (N=24)	3.35 (.91)	3.36 (.92)
		Total (N=149)	2.86 (.79)	3.06 (.78)

사 모두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한 집단간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1년도 1차 조사에서는 실시하지 않았던 조사로서, 2004년도 2차 조사에서 새롭게 실시한 조사 중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성향에서의 외향적 종교 성향과 내재적 종교 성향을 평가한 것이 있었다. 이것은 Allport와 Ross 등¹⁶⁻¹⁸⁾이 개발한 종교 성향에 대한 평가 도구를 최영민 등¹⁹⁾이 한국형으로 만들어 표준화시킨 것이다. 2차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응답한 내재적, 외향적 점수와 인식 요인들의 응답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본 결과가 표 13에 있다. 여기서 주거민족도가 내재적 종교성향($r=0.261$, $p<.001$)과 외향적 종교 성향($r=0.164$, $p<.05$) 모두에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외에 외현적 종교성향이 가치관 혼란($r=0.196$, $p<.05$), 북한이탈주민간의 단결($r=0.311$, $p<.01$)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는 성별과 연령, 그리고 종교 유무에 따른 각각의 외현적, 내재적 종교성향의 점수를 본 것이다. 흥미 있는 결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재적, 외현적 종교 성향이 모두 다 증가하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여성에서 더 뚜렷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그와 반대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내재적, 외현적 종교성향이 모두 다 더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현적인 종교성, 즉 종교 기관에서의 대인관계 등을 더 중시하며, 동시에 교회 활동 등을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내재적 종교 성향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찰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난 중요한 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과 토론으로 요약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의 삶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가?

1차 조사 때와 비교하여 볼 때, 3년이 지나 실시한 2차 조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제생활에서의 만족도나 전체적인 만족도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모두 어느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크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한 정부의 그들에 대한 주택지원, 의료지원, 취업 지원, 정착금 지원 등에 대한 불만족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은 정부 지원 정책에 대

Table 14. 의식 요인과 종교성향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내재종교	.007	.066	.159	.070	.129	-.029	.014	.114	.261 [†]	-.038	-.017	-.102
외현종교	.015	.196*	.311 [†]	.134	.104	.023	-.021	.119	.164*	-.039	-.004	-.048

* : p<.05, † : p<.01, ‡ : p<.001

한 만족도가 그렇게 크게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만족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를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이유로 무시와 차별을 받았다는 인식의 증가가 없었으며,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남한 사람들의 증가가 있었고, 자녀들을 남한에서 살게 해 준 것에 대한 만족도가 여전히 매우 높았으며, 미래에 대하여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 등으로 이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하고 있음으로 인한 결과라 보여진다. 그리고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1차 조사에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2차 조사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측면이 크므로(표 5, r=.428, p<.001) 사실, 이 부분은 정부의 지원이 카진다고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는 없는 측면도 있었다.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의식 변화의 차이가 있을까?

본 연구의 결과는 인구학적 특징에 따른 의식 변화 양상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었다.

첫째,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여성들의 급격한 의식 변화였다. 적응 초기에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가치감의 혼란을 느끼고, 북한에 동조하는 의식도 강하고, 터놓고 이야기 할 대상도 없으며,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후, 여성들의 남성들과의 그런 차이는 정신신체 건강 만족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없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이 그만큼 남한 사회에서 의식의 변화가 긍정적으로 빠르게 있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여성의 급격한 변화와 달리, 남성의 의식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간의 차이가 부부 단위로 남한에 들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있어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원 교육에서 이러한 내용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반영하고 교육할 필요성을 보였다.

둘째, 연령에 따른 변화에도 차이가 있었다. 즉 북한이탈주민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남한 사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계속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상대적으로 북한에 심리적으로 동조하는 의식이 적고, 경제적 만족도가 더 높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남한 사

람에 대한 이해하기 어려움이 이들의 남한 생활에 큰 어려움이 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비하여 젊은 사람일수록 남한 사람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적게 느끼고 있으나, 그러나 북한에 대한 심리적 동조는 더 강하며, 자신의 주거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북한에서의 학력, 당원 여부, 군 복무 여부 등의 인구학적 조건들은 상대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인식 변화에 적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항목에서 특징 있는 결과를 보였다. 즉 남한 사람 이해 곤란 요인에 있어 적응 초기에는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그런 인식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었으나 3년이 지나면서 학력에 따른 차이는 없어졌다. 그러나 같은 항목에서 적응 초기에는 과거 노동 당원 여부에 따른 차이가 없었으나, 3년의 시간이 지나고는 당원 출신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 군 복무를 한 사람들이 적응 초기에 남한의 사회와 언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3년 뒤에는 그러한 어려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당원 여부, 군 복무 여부 등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의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만 당원 출신들에게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좀더 강화될 필요를 보여 주었다. 북한에서의 당원 여부나 군 복무 여부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에 비하여 남한에서의 생활에서는 그러한 차이를 상대적으로 적게 보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당원이었던, 아니든, 북한과 남한은 너무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회여서, 이들이 북한에서 가지고 있었던 모든 차이가 상대적으로는 작은 것이 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서 생활을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들은 거의 같은 입장에서 새로 남한의 모든 것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입장에 들어가고,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별과 연령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하나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교육을 시킬 때에 교육 대상자들의 분류에 있어서도, 일단은 그들의 북한에서의 학력이나 당원 여부, 군 복무 여부가 아닌 성별과 연령으로 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 준다.

어떻게 이들로 남한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북한이탈주민들 어떻게 하여야 그들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까? 연구 결과는 정착초창기에는 그것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나 주거 만족도와 상관이 있었으나 3년 뒤에는 그러한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대신, 가치감의 혼란, 남한 사람에 대한 이해 정도, 정신신체 만족도, 남한 사람들의 편견 등이 새로운 상관 요인으로 부상하였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초창기에는 정부의 지원 정책 등이었으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것보다도 이들이 스스로 어떤 가치감을 가지고 있고, 이들이 남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이들이 남한 사람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정부 지원 정책에 대한 불만이 강하게 있어도 그것은 향후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대폭적인 예산 증액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은 남한 사회에 또 다른 갈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차별을 덜 받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들이 좀 더 안정된 가치감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그들이 남한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정신 신체적인 만족감을 높여 주는 것 등으로 이들의 삶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치감 혼란에 따른 적응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본 연구 결과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감 혼란은 경제적 만족도, 정신신체건강에 대한 민족도, 미래에 대한 전망 등과 더 강하게 상관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치감과 연관된 요인들 모두가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에서의 인식과 가장 중요하고도 예민한 연관을 가지는 항목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가치감을 어떻게 중가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그러나 1차 조사나 2차 조사 모두에서, 종교의 유무 자체가 이러한 가치감 혼란에 영향을 아직 주고 있지 못함을 보여 주었다. 즉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그들의 종교가 그들의 가치감에 까지 영향을 끼칠 만큼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교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외현적 종교 성향이 적을수록 이들의 가치감의 혼란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면서 외현적 종교 성향에만 집중하지 않고, 내재적인 종교 성향과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하는 것이 종교계의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종교가 이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의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

본 연구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의 특징을 보여준다. 첫째, 1차 조사 당시에는 78.9%가, 2차 조사에서는 63.6%의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속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대부분은 개신교를 그들의 종교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종교적인 편중 현상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둘째, 그러나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3년의 기간 동안 줄어들었으며, 그 역시 대부분 개신교에서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중도에 그만둔 이유는 연구자들의 연구에서 보고한 바 있었다.²⁰⁾ 셋째, 이들의 종교 생활 여부가 이들의 의식에 차이를 만들고 있지는 않다는 것이 중요한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2001년도, 2004년도 조사 모두에서 나타난 결과였다. 다만, 종교 여부와는 별도로, 이들의 종교 성향을 내재적, 외현적 성향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을 때, 외현적 종교 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가치감의 혼란이 더 크고, 동시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단결에 대한 의견이 더 강함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조사 문항의 성격상, 외현적 종교성향은 사회적 활동을 강조하며, 자기 성찰을 적게 하는 것을 반영하게 되어 있음으로 그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가급적 북한이탈주민들이 외현적 종교 성향에서 좀더 성숙한 내재적 종교 성향으로 성장해 가도록 돕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즉 아직 내재적 종교성향이 가치감 혼란의 감소와 연관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의 종교적 체험과 성향은 아직도 충분히 내재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문항의 성격상 외현적 점수와 내재적 점수는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가져야 하는데, 북한이탈주민들에게는 이 두가지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아직 종교에 대한 적절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종교의 교리에 대한 이해나 종교적 심성이 부족한 상태에서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위로도 받고, 사람들과도 사귀며, 또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한 다목적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말미암은 결과로 보여 진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아

직 그것이 편향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종교적 성숙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기에, 종교 기관들이 그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외현적인 종교성, 즉 종교 기관에서의 대인관계 등을 더 중시하며, 동시에 교회 활동 등을 열심히 참여함으로써 그들의 내재적 종교 성향도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따라 종교 기관들은 젊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더 관심을 보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과 같은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하여 어떤 의식의 변화를 보이는가?

북한이탈주민들은 3년 전에 비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자립 의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3년 전보다 더 강하게 이야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그들의 인식 변화를 보여 주었고, 3년 전에 비하여 터놓고 이야기 나누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있는 것에서도 변화를 보이지 않아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 간의 관계와 인식에 있어 긍정적 변화가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와는 대비되게,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북한이탈주민들끼리의 단결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크게 무시나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경제적인 만족도나 남한 사회생활 전체에 대한 만족도에서 떨어진 것이 없으며, 또한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증가하지 않은 것, 그리고 그런 단체가 있을 때 참여하겠다는 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이들이 그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집단 행동에 들어갈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았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의 노조들처럼, 자신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 시켜 달라고 집단 행동을 할 경우, 남한 사회의 큰 거부감과 저항에 부딪칠 것이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게 훨씬 더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들 북한이탈주민들의 정부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중에서도 특히 가장 급격히 감소한 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향후 별도 논문으로 보고할 예정이다. 1차 조사 때와 비교하여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 기분이 나빠진다”, “남북한이 축구시합을 하면 북한을 응원하겠다”, “만일 내가 결혼을 한다면 북한 출신 사람과 하겠다”와 같은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북한에 대한 심리

적 동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감소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이상과 같은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성공적 적응을 위한 제안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부 정책의 보완과 민간 지원의 연결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을 늘리는 것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실시되고 있는 지원 중 일부분을 보완해 갈 필요성을 보인다. 그 중 특히 의료 지원에 대한 만족도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였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탈주민들은 의료보호 대상자로 지정되어 모든 의료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고 있고,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신신체 건강 상태에 대한 만족도도 감소하고 있으며, 그것은 적응 생활 전체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로 된다. 무엇보다도 민간 의료 자원이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좀더 연결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이탈주민 지원 민간단체 중 의료단체들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지원하는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있어야 하고, 민간단체 안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의 강화

본 연구 결과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난 결과 중 하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무시와 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응답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3년간의 남한 생활을 통하여 이에 대한 문항과 요인 모두에서 이에 대한 응답이 더 증가하지 않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줄어든 응답이 나온 것은 우리 남한 사회가 비교적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긍정적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더 긍정적인 발전을 하기 위하여 남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과 통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도록 하는 사회 교육과 학교 교육이 체계적으로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원 교육에서 성별 및 연령 대에 따른 교육의 강약

본 연구 결과는 하나원에서 시행되는 교육에 다음과 같은 점들이 좀더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하나원 교육 대상자들을 내부적으로 분류할 때, 성별과 연령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북한에서의 노동당원 여부, 군 복무 여부, 학력 등의 특징을 부분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이들의 남한 사회 이해와 안정적 가치관을 증진시키는 교육이 좀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가치감의 혼란은 이들의 적응에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이들의 가치감 혼란을 감소시키는 교육 조치가 하나원, 교회, 사회복지관 등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관과 교회 등을 통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계속 교육의 필요

본 연구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 생활 3년의 기간 중 많은 의식의 변화가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러한 의식 변화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또한 의식 변화에 따른 적응을 성공적으로 하도록 돋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관과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에서 비교적 쉽게 접근이 용이하며, 종교 유무와 상관없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접근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다. 또한 교회는 여전히 가장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곳이며, 그들의 가치감과 인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접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교회에 외현적 측면에만 관심을 가지지 않고, 내재적 종교성향을 키우는 것이 그들의 가치감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주목하고 그러한 측면의 종교 생활 지도를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사회복지관과 교회들이 이러한 북한이탈주민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정부와 민간단체들의 지원이 좀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인 북한이탈주민 의식 조사의 필요성

본 연구는 같은 북한이탈주민 집단을 대상으로 3년이 지

난 후 반복 조사를 하여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어떻게 생활에 적응해 왔고 그에 따라 의식의 변화를 가졌는지를 매우 정확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도 이러한 추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 단어 : 북한 · 탈북자 · 북한이탈주민 · 사회의식 · 적응 · 만족도.

■ 감사의 글

본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어려운 가운데서도 협조하여 주신 북한이탈주민들과 정부 기관에 깊이 감사드린다.

REFERENCES

- 1) 강구섭. 북한 이탈 주민 사회문화적응 프로그램 개발(석사논문). 서울: 성균관대;1999.
- 2) 김영수, 정영국. 탈북 귀순자 남한 사회적응실태조사. 통일 연구. 서울: 통일 연구원;1996.
- 3) 독고순. 비교 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 주민 적응 연구(박사논문). 서울: 연세대학교;1999.
- 4) 박희정. 북한이탈 여성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 연구 (석사논문). 서울: 가톨릭대;1998.
- 5) 오혜정. 귀순 북한 동포의 남한 사회 적응 실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석사논문). 서울: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1995.
- 6) 전우택, 민성길, 이만홍, 이은설. 북한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신경정신의학 1997;36:145-160.
- 7) 전우택, 윤덕룡. 2001년도 북한 이탈주민 사회적응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북한이탈주민후원회;2001.
- 8) 정유선. 탈북 귀순자의 적응과정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방식 (석사논문). 서울: 서울대;1998.
- 9) 이소래. 남한 이주 북한 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석사논문). 서울: 이화여대;1997.
- 10) 이장호. 북한 출신 주민(북한이탈주민 포함) 심리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개발. 성폭논총 1997;28:739-789.
- 11)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북한 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 방안연구. 서울: 한국문화정책 개발원;1998.
- 12) 조영아.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박사논문). 서울: 연세대;2003.
- 13) 전우택. 북한이탈주민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 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1997;1:109-168.
- 14) 전우택, 윤덕룡, 엄진섭.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생활 실태 조사 - 2001년 553명의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연구 2003;7:155-208.
- 15) 전우택, 윤덕룡, 엄진섭.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의식 및 생활 만족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2004;43:93-104.
- 16) Allport GW, Ross JM. Personal Religious orientationand prejudice. J Pers Soc Psychol 1967;5:432-443.
- 17) Feagin JR. Prejudice and religious types: A focused study of southern fundamentalists. J Scien Study Relig 1964;4:3-14.
- 18) Hoge DR. A Validated intrinsic religious motivation scale. J Scien Study Relig 1972;11:369-376.
- 19) 최영민, 김영미, 이정호, 이기철. 한국판 내재적·외현적 종교성향 척도의 개발 및 표준화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002;41: 1197-1207.
- 20) 전우택, 조영아. 북한이탈주민들의 신앙 경험과 교회의 통일 준비. 통일연구 2003;7:105-128.